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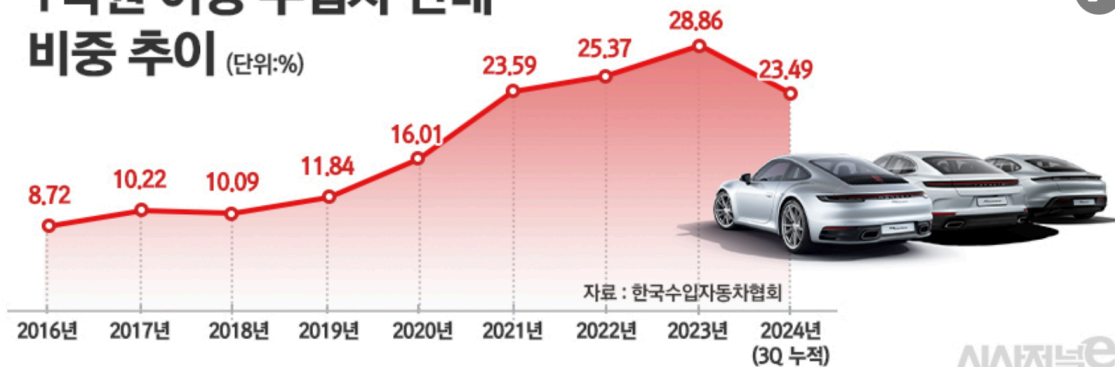
## “포르쉐도 흔해”...애스턴마틴·마세라티 등 최상위 틈새시장 공략

### ◇ 갈수록 커지는 역대 수입차 시장

이처럼 그동안 국내 시장에 소홀했던 애스턴마틴과 마세라티가 진출을 본격화하는 이유는 한국 고가 수입차 시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수입차 시장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등 독일 3사 중심으로 커지다가 최근에는 포르쉐코리아가 연간 1만대를 판매 할 정도로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비중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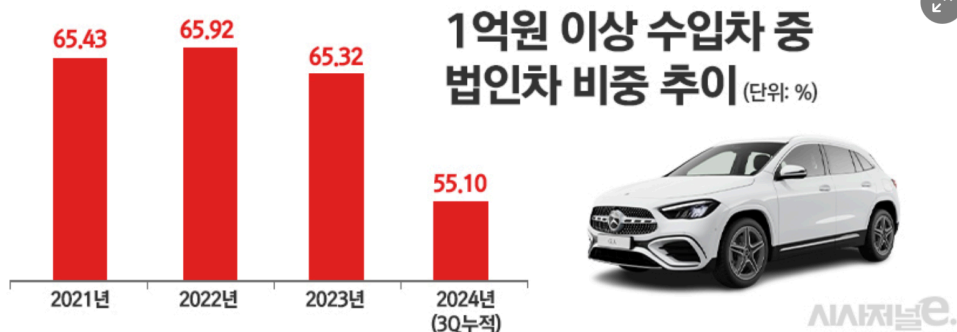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 연두색 번호판에 따른 법인차 판매 감소는 변수

국내 초고가 수입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애스턴마틴과 마세라티 등도 틈새 시장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올해 법인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그동안 고가 수입차 시장은 사실상 법인차 중심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억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은 65% 수준을 기록했다. 1억원 미만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3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역대 수입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수입차 내 법인차 판매 비중은 55%로 작년대비 10%p 가량 떨어졌다.

수입차 업계, 침체 속 테슬라·일본車 약진

[https://www.dt.co.kr/contents.html?  
article\\_no=2024111002109932091005&ref=naver](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11002109932091005&ref=naver)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수입 승용차는 총 21만5980대가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한 수치다.

특히 고급차 브랜드의 판매량 감소가 뚜렷했다. 지난해 1~9월 9690대가 판매되며 웬만한 수입차 대중 브랜드만큼의 판매량을 기록한 포르쉐는 올해 같은 기간 30.4% 감소한 6744대가 팔렸다. 벤틀리(2023년 693대→2024년 293대)는 57.1%, 롤스로이스(244대→150대)는 38.5%, 마세라티(364대→219대)는 39.8%가량 각각 급감했다.

고가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되자 역대의 슈퍼카·럭셔리 브랜드의 법인차 신규등록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법인차 신규등록대수는 7만 5635대로 지난해보다 10.9% 감소했다.

**"8년래 이런 적 처음"...슈퍼카 판매 확 줄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  
articleId=A202501280312&t=NN](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1280312&t=NN)

지난해 1억원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1억원이 넘는 수입차는 총 6만2천 520대가 팔려 전년(7만8천208대) 대비 20.1% 감소했다.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1억원 이상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28.9%에서 지난해 23.7%로 5.2%포인트(p) 떨어졌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MW가 1억원 이상 수입차 2만4천543대를 팔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만9천529대), 포르쉐(8천254대) 등의 순이었다.

차량 1대 가격이 최소 3억원이 넘는 럭셔리 브랜드인 벤틀리의 판매량은 2023년 810대에서 지난해 400대로 가장 크게(50.6%) 줄었다.

**법인차에 새겨진 '연두글씨'...판매 줄고 '꼼수' 늘어**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304>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고가 법인차 판매 '급감'

실제로 고가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붙기 시작하면서 올해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1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1~7월 법인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8000만원 이상의 신차 등록 대수는 2만7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 같은 기간 법인차 전체 등록 대수는 24만1172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는 "최근 5년 동안 고가 법인차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최저가 모델도 역대를 호가하는 법인 슈퍼카, 럭셔리카가 눈에 띄게 줄어 연두색 번호판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는 "최근 5년 동안 고가 법인차 감소폭이 가장 컸다"며 "최저가 모델도 역대를 호가하는 법인 슈퍼카, 럭셔리카가 눈에 띄게 줄어 연두색 번호판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량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브랜드는 애스턴마틴이다. 애스턴마틴 법인차는 올해 1~7월 1대가 등록되며 전년 동기 대비 96.2% 감소했다. 그 밖에도 맥라렌(37대) 85.0%, 벤틀리(123대) 65.0%, 롤스로이스(89대) 44.4%, 마세라티(104대) 42.2% 등 1억원을 호가하는 고급차 브랜드의 법인차 등록이 나란히 줄었다.

일명 '회장님 차'로 불리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G90과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6%, 63.9% 감소했다.

**'연두색 폭탄'에 놀랐나...뺏뺏한 럭셔리카들, 신차 들고 우르르**

<https://www.news1.kr/industry/auto-industry/5572007>

최근 전반적인 수입차 시장 부진 속에 특히 고가의 럭셔리카 브랜드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애스턴마틴의 국내 판매량은 2020년 42대, 2021년 55대, 2022년 69대, 지난해 79대로 늘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1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2021년 506대, 2022년 775대, 2023년 810대 등 연간 판매량 신기록을 이어갔던 벤틀리 역시 올해 9월까지 판매량은 257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마세라티도 전년 동기(334대) 대비 40%가량 줄어든 204대를 판매했고, 롤스로이스 역시 지난해(227)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135대를 판매했다.

판매 부진 원인으로는 고급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특히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된 연두색 번호판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8000만 원을 넘는 법인차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2만 7400대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만 대 넘게 줄어든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 효과 '글썸'...'꿈수로 흰색 번호판 달기도'**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9020178>

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차 신차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7% 감소한 2만7400대를 기록했다. 이는 1만대가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일명 '회장님차'로 불리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 판매량은 전년보다 45.6% 줄어 3607대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판매량은 63.9% 감소해 1843대에 그쳤다.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 차량 등록 대수도 줄었다. 포르쉐 법인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 4183대가 등록된 것과 비교하면 47.0% 감소한 2219대로 집계됐다. 벤틀리는 같은 기간에 351대에서 123대로 65.0%가 줄었다. 이밖에 마세라티 42.2%, 롤스로이스 44.4%, 맥라렌 85.0% 판매도 크게 줄었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효과라고 해석했다.

### 연두색 번호판의 굴욕...'회장님 차' 판매 급브레이크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83117220150841>

올해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인차로 인기를 끌었던 대표 모델들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7% 감소한 2만7400대를 기록했다. 이는 1만대 이상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법인차 등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꼽았다. 올해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는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특히 자가용 법인차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월에서 7월 사이 3만3363대가 등록되었던 자가용 법인차는 올해 같은 기간 2만3007대로 31.0% 줄었다. 국산 브랜드 중 쉐보레의 법인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31.8% 감소한 1317대로 나타났다.

고급 브랜드에서도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네시스 G90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6% 줄어 3607대에 그쳤으며,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는 63.9% 감소해 1843대를 기록했다. 이들 차량은 꾸준한 수요가 있었지만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등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차량 등록 대수도 크게 줄었다. 포르쉐는 전년 동기 대비 47.0% 감소한 2219대를 기록했고, 벤틀리는 같은 기간 65.0% 줄어 123대에 그쳤다.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맥라렌 등 고급차 브랜드들도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

법인차 등록 감소에는 규제 시행 이전에 고가 법인 차량을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선 이후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공약으로 언급되면서 제도 시행 전에 선구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수입차 구매 비중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기 위해 미리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많아 기저효과로 올해 법인차 등록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정책효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회사 돈으로 산 차" 연두색 인증에...'회장님 차' 판매량 후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3010444549055>

올해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했다. 법인차로 인기를 끌었던 대표 모델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효과가 법인차 등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차 신차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7% 감소한 2만7400대를 기록했다. 1만대가 넘게 줄어든 수치다.

업계에선 법인차 등록 감소 배경으로 법인차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꼽는다. 올해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정책이 시행됐다.

용도별로 보면 자가용 법인차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월~7월 3만3363대 등록됐던 자가용 법인차는 올해 같은 기간 31.0% 줄어든 2만3007대 등록됐다. 국산 브랜드 중에선 쉐보레 법인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31.8% 줄어든 1317대로 집계됐다.

'회장님 차'로 불리는 고급 브랜드의 대표 차종도 판매량 감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제네시스 G90 판매량은 전년보다 45.6% 줄어 3607대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판매량은 63.9% 감소해 1843대에 그쳤다.

이들 차량은 꾸준한 수요가 있는 차량이다. 특히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은 국내 기업 총수들이 애용한다. 이 차를 만든 현대차그룹 오너인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회장들이 G90을 탄다.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 차량 등록 대수도 크게 줄었다. 포르쉐 법인 차량 판매량은 전년 동기 4183대가 등록된 것과 비교하면 47.0% 감소한 2219대로 집계됐다. 벤틀리는 같은 기간에 351대에서 123대로 65.0%가 줄었다.

마세라티(104대, -42.2%), 롤스로이스(89대, -44.4%), 맥라렌(37대, -85.0%) 판매도 크게 줄었다. 애스턴마틴으로 올해 8월까지 단 한 대 등록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26대)보다 96.2% 줄었다. 람보르기니(206대, -1.0%), 페라리(165대, -5.7%)는 소폭 줄었다.

법인차 등록 감소 이유로 규제 이전에 고가 법인차량을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렸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선인 공약으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언급됐고 올해 1월 제도 시행까지 1년 반이 넘는 기간에 선구매를 했다는 분석이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수입차 구매 비중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평균보다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 싫어하는 소비자들이 제도 시행 전 미리 구매를 한 점을 고려하면 그 기저효과로 올해 법인차 등록이 줄어 들었는데 이것도 정책효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

**[경제쑥쑥] 사라진 슈퍼카·회장님차...연두색 번호판에 법인차 급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30015900641?input=1825m>

올해 들어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8천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2만7,400대로 집계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요.

1만대 이상 줄어든 수치고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고급 스포츠카 법인차 중에서는 포르쉐의 감소세가 눈에 띄는데요.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탕입니다.

포르쉐는 이 기간 2,219대가 등록돼 전년 대비 47% 급감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1% 감소했고, 페라리는 5.7% 감소해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맥라렌, 애스턴마틴도 감소율만 보면 급감했는데, 워낙 고가 차량이다 보니 원래 판매량이 많지 않았습니

**"연두색 번호판 통했다"...올해 법인차 '1만대' 급감 효과**

<https://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76>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더니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된 후 법인 구매 비중이 줄어 지난달 3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차 신차등록대수는 2만74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7%(1만506대) 감소한 수치다. 올해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정책이 도입됐다.

용도별로 보면 자가용 법인차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3만3363대 등록됐던 자가용 법인차는 올해 1만356대 감소(-31.0%)해 2만3007대 등록되는 데 그쳤다. 이온바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차량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쉐 법인 차량 판매량은 전년보다 47.0% 감소한 2219대에 그쳤다. 벤틀리(-65.0%), 마세라티(-42.2%), 롤스로이스(-44.4%), 맥라렌(-85.0%) 판매도 크게 줄었다. 국산 브랜드 중

에션 쉐보레 법인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31.8% 줄어든 1317대에 그쳤고, 제네시스 G90 판매량은 전년보다 45.6% 줄어 3607대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판매량은 63.9% 감소해 1843대가 등록됐다.

포르쉐인데 연두색 번호판, 창피했나...올해 '법인차'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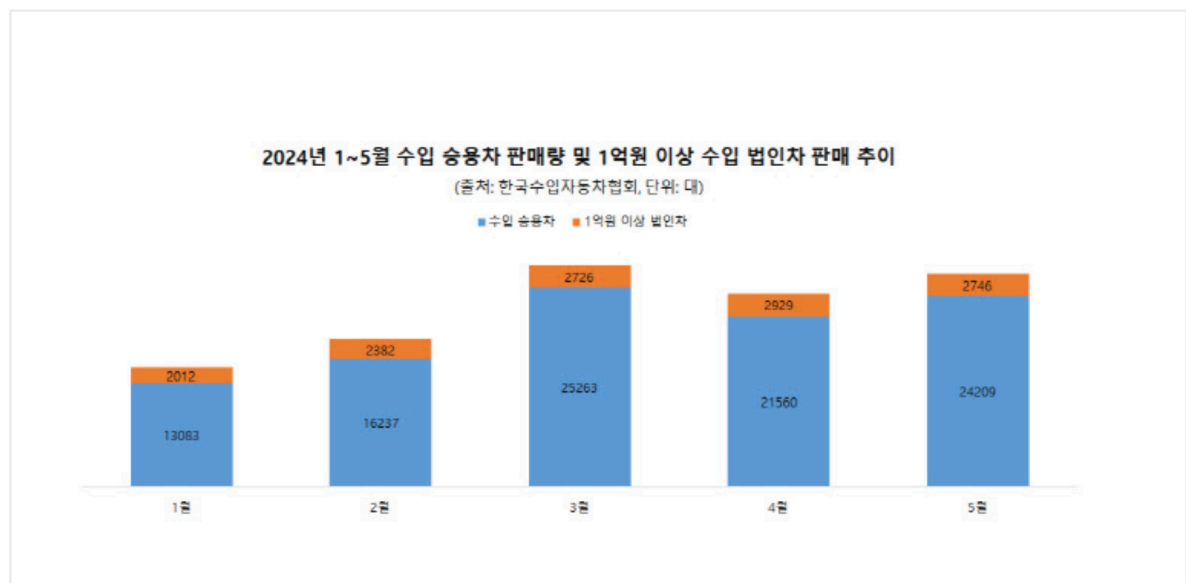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30/126768215/2>

슈퍼카 막 몰더니...'연두색 번호판' 효과 이 정도였어? 놀라운 변화

[https://www.seoul.co.kr/news/economy/car/2024/08/29/20240829500256?](https://www.seoul.co.kr/news/economy/car/2024/08/29/20240829500256?wlog_tag3=naver)  
wlog\_tag3=naver

[https://www.edaily.co.kr/News/Read?](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7846638925000&mediaCodeNo=257)

newsId=03207846638925000&mediaCodeNo=257



벤틀리 -77%, 포르쉐 -23%...법인차 녹색번호판 영향?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2001039910018003)  
no=202404200103991001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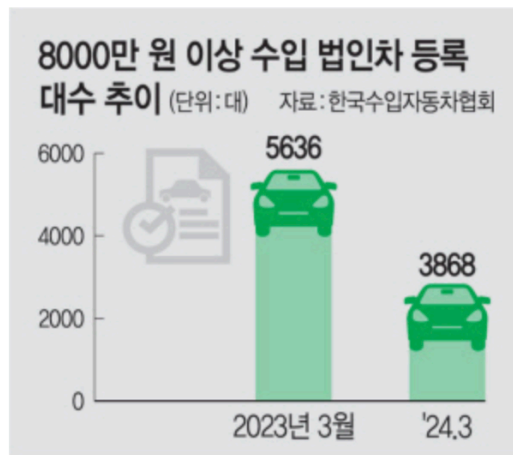
올 1분기 슈퍼카 판매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 더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법인차 녹색 번호판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벤틀리의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7% 감소했다. 롤스로이스는 35%, 람보르기니는 22%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168대를 팔았던 벤틀리 판매량은 38대로 주저앉았다.



슈퍼카 대중화를 이끌었던 포르쉐의 판매도 부진했다. 포르쉐는 올해 국내에서 2286대를 팔아 전년보다 판매가 23%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르쉐는 지난해 브랜드 최초로 판매량 '1만 대 클럽'에 입성했으나 올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4% 초반대에 그쳤다"면서 "렉서스와 볼보에도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슈퍼카뿐 아니라 수입차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1분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5만4583대로 전년(6만1684대)보다 11.5% 줄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른 BMW의 판매량은 전년보다 6% 감소했다. 2위 벤츠도 전년보다 28% 줄었다.



이는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에 녹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등록된 수입차(5만4583대) 중 법인차 비중은 32%를 기록했다. 녹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한 해 동안 등록된 수입 법인차 대수는 전체 등록 대수(27만1034대)의 40%와 비교하면 8%포인트 감소했다.

**'1만대 클럽' 포르쉐도 '흔들'...우울한 슈퍼카 시장**

**포르쉐 1분기 판매량 23% 감소**

**수입 법인차 비율 지난해 40%→올해 32%**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비율도 줄어**

[https://www.newsis.com/view/?](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9_0002705436&cID=10435&pID=13000)

[id=NISX20240419\\_0002705436&cID=10435&pID=130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9_0002705436&cID=10435&pID=13000)

19일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연초 슈퍼카 시장은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 들어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대비 벤틀리(-77%), 롤스로이스(-35%), 람보르기니(-22%)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168대를 팔았던 벤틀리 판매량은 38대로 주저 앉았다. 지난해 기세가 완전히



꺾인 마세라티도 올해 국내에서 54대 판매에 그쳤다.

포르쉐도 판매 부진 대열에 합류했다. 포르쉐는 올해 국내에서 2286대를 팔았는데, 이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수치다.

포르쉐는 지난해 브랜드 최초로 판매량 '1만대 클럽'에 입성하며 슈퍼카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4% 초반대에 그쳐, 렉서스(5.74%)와 볼보(5.51%)보다 낮은 수치다.

슈퍼카의 판매 부진은 수입차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올 1분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5만4583대로 전년(6만1684대)보다 11.5% 줄었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른 BMW는 올해 1만6968대를 팔며 수입차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판매량은 전년보다 6% 감소했다. 2위 벤츠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판매량 1만720대에 그친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제도가 시행되며 고가 수입차 수요가 확연히 꺾인 것도 문제다.

올해 등록된 수입차(5만4583대) 중 법인차 대수는 1만7720대로 32%를 기록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한 해 동안 등록된 수입 법인차 대수는 10만7677대로 전체 등록 대수(27만1034대)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에서 1억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 비율은 지난해 47%에서 올해(1~3월) 40%로 7%p 감소했다.

### 슈퍼카 판매량이 '뚝' 떨어진 이유는?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31408101641047>

올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는데요. 시행 이후 8000만원 이상 수입차의 법인 등록 대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000만원이 넘는 수입 법인차의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인 4793대와 비교했을 때 무려 1242대 감소했습니다.

8000만원 이상 수입차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의 비중은 47%였는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였으며, 이중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7%였습니다. 올해는 전년 동기대비 10%p 줄어든 것입니다.

자동차 브랜드별로 살펴봐도 법인차의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많이 등록된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였는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의 경우, 최다 법인 등록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의 법인차 비중은 69%에 달했습니다. 이어 BMW 38%, 포르쉐 55%, 랜드로버 69% 순이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는 법인차 번호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수입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네티즌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입 법인차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 **연두색 번호판이 창피해서?..."슈퍼카 판매량 줄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013411686143>

국내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온 슈퍼카 브랜드의 연초 판매량이 저조하다. 경기 불황으로 신차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법인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규제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국내 슈퍼카 시장을 이끌던 브랜드들의 연초 판매량이 일제히 줄었다. 벤틀리의 올해 1월~2월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4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35.5% 줄어든 20대, 람보르기니는 76.1% 감소한 11대로 줄었다. 다른 럭셔리카 브랜드가 모두 성장하는 가운데 지난 6년간 부진에 빠진 마세라티는 5.9% 감소한 32대였다.

지난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들어가며 약진을 거듭한 포르쉐만 선방했다. 같은 기간 18.6% 감소한 1505대를 기록했지만 수입차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점유율은 4.89%에서 5.13%로 늘었다.

그동안 슈퍼카 브랜드는 국내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벤틀리, 람보르기니는 각각 810대, 431대로 전년 대비 4.25%, 6.95% 늘었다. 롤스로이스도 17.9% 늘어난 276대를 기록했다. 포르쉐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전년 대비 27% 늘어난 1만1355대를 판매했다. 2006년 한국 진출 이후 최대치로 처음으로 1만대 클럽에 들었다.

그동안 슈퍼카 브랜드는 국내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벤틀리, 람보르기니는 각각 810대, 431대로 전년 대비 4.25%, 6.95% 늘었다. 롤스로이스도 17.9% 늘어난 276대를 기록했다. 포르쉐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전년 대비 27% 늘어난 1만1355대를 판매했다. 2006년 한국 진출 이후 최대치로 처음으로 1만대 클럽에 들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고가 차량 판매가 위축된 상황이다. 수입차 시장 분위

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돼있다. 지난 1월~2월 수입 승용차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든 2만9320대로 집계됐다.

## **‘성공의 아이콘’에서 ‘카푸어’로 이미지 추락...얼어붙은 수입차 시장**

지난해 4년 만에 수입차 판매 역성장  
올해는 판매량은 더욱 꺾여  
판매 부진에 연초부터 할인 경쟁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3270068b>

## **아빠찬스 슈퍼카 '꼴'...람보르기니·포르쉐 판매 '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0309503224659>

수입차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돼있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 수입 승용차 판매도 1분기 5만458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줄었다.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량 감소 폭은 더 크다. 국내 럭셔리 시장을 이끌던 브랜드들의 연초 판매량은 일제히 줄었다. 그동안 럭셔리 브랜드가 꾸준히 판매를 늘려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벤틀리의 1분기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4% 감소한 38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35.2% 줄어든 35대, 람보르기니는 22.2% 감소한 42대였다. 지난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들어간 포르쉐도 22.9% 줄어든 2286대를 기록했다. 다른 럭셔리 브랜드가 모두 성장하는 가운데 지난 6년간 부진에 빠진 마세라티는 1.8% 감소한 54대로 저조한 판매량을 이어갔다.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수입 승용차 중 법인차 비중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을 통한고가 차량 구매량이 상당했는데 연두색 번호판 부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구매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됐다. 지난해 브랜드별 국내 판매 중 법인차 비중은 람보르기니 90%, 마이바흐 87.7%, 롤스로이스 87.3%, 벤틀리 76%, 포르쉐 61.1% 등이다.

<https://news.dealsitetv.com/articles/114415>

## **‘연두색 번호판 쇼크’에... 슈퍼 & 럭셔리, 줄줄이 판매량 ↓**

슈퍼 & 럭셔리들의 하락세 역시 주목할만 한 포인트입니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의 대형

급(배기량 2000cc 이상) 법인 승용차를 신규·변경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 번호판(흰색) 대비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하기로 한 제도가 시행되며 법인차의 사적 유용 시도가 크게 어려워진 탓이죠.

지난해 1만대 판매 금자탑을 쌓으며 수입차 판매량 5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포르쉐를 비롯해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이 그 피해자입니다. 우선 포르쉐는 3월 781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1117대) 대비 판매량이 30.1% 꺾였습니다. 1분기를 기준으로도 총 판매량이 2286대로 전년 동기의 2966대 대비 0.62% 감소했죠. 람보르기니와 롤스로이스, 벤틀리의 경우에도 지난 1분기 42대, 35대, 38대를 판매하며 각각 22.2%, 35.2%, 77.4%의 판매율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본디 법인을 통해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구입비를 비롯해 보험료, 유류비 등을 전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물론 연 최대 1500만원의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댄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국내 수입차 브랜드별 법인차 판매 비중은 △람보르기니 90% △마이바흐 87.7% △롤스로이스 87.3% △벤틀리 76% △포르쉐 61.1% 순으로 높았습니다. 하나같이 역대를 호가하는 브랜드들이네요.

그렇다고 비단 일부 브랜드들만의 판매감소 현상이라 보기에는 ‘연두색 번호판’ 효과, 꽤나 확실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대수 중 법인차는 7179대로 전체 수입차 2만5263대 중 28.4%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4% 대비 8.0% 감소했거든요. 1분기(1월~3월) 기준으로도 올해 법인차 비중은 총 판매량의 32.5%(1만7720대)로 지난 2023년 같은 기간의 36.7%(2만2639대) 대비 4.2% 감소했네요.

아직 1분기가 갓 지났을 뿐이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프리미엄카 브랜드들의 올해 국내 농사는 아무래도 ‘흉작(凶作)’에 그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아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슈퍼카 업체들의 두통이 만만찮을 것 같네요.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09517563?OutUrl=naver>

### ‘그거 법인차야?’... ‘연두색’ 때문에 외제차 판매량 줄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벤틀리의 1분기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4% 감소한 38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35.2% 줄어든 35대, 람보르기니는 22.2% 감소한 42대였다. 지난해 판매량 ‘1만대 클럽’에 들어간 포르쉐도 22.9% 줄어든 2286대를 기록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수입 승용차 중 법인차 비중이 떨어지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피해 지난해 고가 법인차량을 구매하려는 막바지 수요가 몰렸다”며 “지난해 12월 수입차 구매 비중에서 법인차가 비중은 46.5%를 차지했다”고 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겠다며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제도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입 가격 8000만 원 이상의 민간·공공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한국 럭셔리카 시장" 애스턴마틴·마세라티·롤스로이스·벤틀리 신차 '한판승부'**

<https://www.gp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595>

전세계적인 '명차'로 불리는 럭셔리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잇따라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안목이 럭셔리카와 슈퍼카에 대한 평가가 알려지면서, 성공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관문으로 통하고 있어서다. 또 올 들어 고가 법인차에 부착하는 '형광 번호판' 여파인지 럭셔리 수입차들의 판매가 부진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2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신규 등록된 1억 원 이상 수입 럭셔리카는 4만5739대로 전년 동기(5만6351대) 대비 18.8% 감소했다.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감소, 지난해 1~9월보다 4.9% 감소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1억 이상 럭셔리카 시장의 역성장폭은 전체 수입차 시장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벤틀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벤틀리는 올 들어 9월까지 전년(610대) 대비 57.9% 급감한 257대를 판매했다. 롤스로이스는 올해 135대를 판매, 전년(227대) 대비 판매량이 40.5% 줄었다. 마세라티는 전년(334대) 대비 39% 감소한 203대를 판매했다. 포르쉐도 올해 1~9월 6043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부진했다. 올해 국내 럭셔리카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는 경기부진과 법인차 수요 감소로 알려졌다. 장기화된 고금리 효과로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내수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영향도 컸다. 정부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럭셔리 업체들은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장을 이끄는 것은 신차인 만큼 국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신차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포문을 연 곳은 영국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애스턴마틴이다.

**"이게 통하네? 창피한가!?" 연두색 법인 번호판의 위력, 슈퍼카 판매량 보니...**

<https://www.radiancereport.kr/news/articleView.html?idxno=10285>